10.15686/fkl.2025..66.104 OPEN ACCESS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시의 ‘함께-세계 만들기’

김선빈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목차

1 들어가며
2 201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 현대시단의 ‘시적 실천’
3 인간 존재에 대한 반성과 ‘응답-능력’ 기르기
4 시적 대상과의 촉수적 뒤얽힘을 통한 ‘공-산’의 실천
5 나가며

한국여성문학학회 2025년 하반기 학술대회에서 〈2020년대 여성시에 나타난 공생적 얽힘과 함께-세계 만들기의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하였음. 글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다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토론자 하재연 선생님과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정끝별 선생님, 익명의 심사자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 논문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관리번호4120240315002)으로 지원된 연구임.

국문초록

이 글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시의 흐름을 도나 해러웨이(Donna J. Haraway)의 사유와 연결지어 봄으로써 성다영, 유계영, 한연희의 시에서 발견되는 '함께-세계 만들기(worlding-with)'의 양상과 그 의미를 살핀다. 그렇게 함으로써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시의 두드러지는 변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비인간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노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유의미하게 이어지는지를 논한다. 이 글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세 시인의 시에는 공통적으로 폭력적 세계를 성찰하고,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를 모색하며 '함께-세계 만들기'를 시도하는 화자가 등장한다. 다시 말해 성다영, 유계영, 한연희 시의 시적 화자는 비인간 타자와의 '함께-되기(becoming-with)'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존재를 반성적으로 돌아볼 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을 '시적 실천'으로써 구현한다. 구체적으로 성다영 시의 시적 화자는 인간 중심주의의 폭력성을 의문시하는 동시에 고백하며, 유계영 시의 시적 화자는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비인간 타자-되기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끝으로 한연희 시의 시적 화자는 '우리'의 이야기를 지속함으로써 '공-산'의 가능성을 실험한다. 이들 시에 발현되는 비인간 타자와의 '함께-세계 만들기'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시적 실천'으로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시가 보여주는 하나의 유의미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국문핵심어: 페미니즘 리부트, 시적 실천, 성다영, 유계영, 한연희, 공생적 얽힘, 응답-능력, 함께-세계 만들기, 도나 해러웨이

들어가며

이 글은 폭력적인 세계의 실상을 목도하며 죄책감을 느끼는 동시에 다른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화자의 태도에 주목하는 데서 출발한다. 고통스러운 세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반성하고, 또 어떤 책임을 감히 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시 특징 중 하나라고 진단할 수 있다면, 이러한 움직임이 현시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밝혀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다시 말해, 이 글에서는 폭력적인 세계를 경험한 이들이 '공-산(共-産)'을 시도하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절망과 좌절을 경험한 이들이 이미 취약해진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고, 또 무엇을 반성해야 하며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은 지구상의 모든 존재자들과 관계 맺으며,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도나 해러웨이(Donna J. Haraway)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존재자들과 구별되는 유일하고 예외적인(anthropos) 존재가 아니다. 모든 존재자들은 관계 속에서만 사유될 수 있으며, 인간에게는 "끔찍한 역사에, 그리고 때로는 즐거운 역사에 직면하여 복수종의 번성을 위한 조건을 만들 책임"[1]이 주어진다. 해러웨이는 '끔찍한 역사'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즐거운 역사'를 만드는 한 방법으로 복수종과 '함께-하기'를 제안한다. 지구상의 모든 존재는 "크리터(Critter)" 즉, "얽힘의 존재들"로서 "안으로 말림(involution)"[2]을 통해 서로를 만든다.[3]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떤 것도 모든 것에 연결되지는 않지만 분명 모든 것은 무언가와 연결'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4]

시에서 시적 화자의 태도는 내면을 고백하고 대상과 관계 맺는 양상을 통해 구체화 되며, 이를 기반으로 구현되는 시적 현실은 '있을 법하지 않은 연결'을 통해 만들어진 "물질-기호론적 세계들의 패턴"[5]을 보여준다.[6] 따라서 시적 화자가

---

1 도나 해러웨이, 최유미 역,『트러블과 함께하기』, 마농지, 2021, 53쪽.

2 갈라 허스택과 나스타샤 마이어스의 논문「안으로 말림의 모멘텀(Involutionary Momentum)」에서 "안으로 말림(involution)"은 지구에서의 살기와 죽기의 "진화(evolution)"에 동력을 주는 것으로서 제시되었다. 해러웨이는 이에 주목하며 '안으로 말기'를 통한 '밖으로 펼치기'의 가능성을 읽어낸다.(위의 책, 122쪽.)

3 위의 책, 109쪽.

4 위의 책, 58쪽.

5 위의 책, 59쪽.

6 해러웨이는 "다종간 응답-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안"으로 '촉수적 사유'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촉수적 사유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SF 글쓰기'이다. SF는 "있을 법하지 않은 연결을 만들어내는 일"이자 그 자체로 사실을 말하는 일이다. "응답-능력을 배양하는

자신의 존재를 규명하는 방식과 시적 대상과 관계 맺는 방식을 중심으로 '촉수적 사유'의 실천을 읽어볼 수 있다.[7]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시적 화자가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대상과 관계 맺는 과정에서 구현되는 태도에 주목함으로써 '함께-세계 만들기(worlding-with)'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동안 보편 '인간'의 범주 안에 완벽히 포섭될 수 없었던 이들이 인간 존재를 반성함으로써 기존의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비인간 존재들과의 '공생적 얽힘'을 통해 '함께-세계 만들기'를 시도하는 노력에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2 201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 현대시단의 '시적 실천'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 현대시단에는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비인간'의 경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성찰적 질문'을 던지는 시들이 본격적으로 출현하였다.[8] 이후 팬데믹 시대를 통과하며 "문단에서는 나날의 일상을 돌보고 삶을 회복하려는 크고 작은 움직임"과 더불어 포스트휴먼 시대 시의 역할과 윤리를 고민하는 작업이 이어졌다.[9] 비록 인간의 언어로 비인간의 세계를 온전히 독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르겠지만,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인간과 비인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감응의 사건 속에서 만나야 할 시점"[10]이 도래하였음을 보여준다.

실천"이기도 한 SF는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진실인 줄 아직은 알지 못하는 진실에 관한 이야기"를 상상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최유미, 『해러웨이, 공-산의 사유』, 도서출판b, 2020, 91쪽, 141쪽)

7 김선빈, 「신해욱 시에 드러난 '공-산共-産'의 감각」, 연남경 외, 『한국문학의 SF적 전회와 윤리적 사변들』, 역락, 2024, 173쪽.

8 이경수, 「포스트휴먼 시대 시 교육의 역할과 방향」, 『국어국문학』 제193호, 국어국문학회, 2020, 204쪽.

9 황선희, 「포스트휴먼 팬데믹 시대 시의 역할과 윤리-감정 교육과 치유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2권 2호, 한국근대문학회, 2021, 9쪽.

10 최진석, 「펜데믹 이후, 세계의 저편 -인류세와 지구생태적 위기의 시적 감응들」, 『사건의 시학』, 도서출판b, 2022, 233쪽.

넓은 맥락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고찰하는 시의 경향은 1990년대 이후 등장하여 2000년대까지 이어진 '생태시'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과거 '생태시'는 '환경 문제를 향한 관심의 증대와 이데올로기의 쇠퇴'를 배경으로 출발하였다.[11] 사회 제도와 인간의 자연관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개진되었으며,[12] 생태환경의 위기에 대한 문학적 대응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서 나아가 2010년대 중반 이후 시에서는 인간 존재의 폭력성을 전적으로 반성하기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의 차원을 넘어 동식물, 사물, 기계 등을 포함하여 폭넓은 차원에서 비인간과의 '관계'에 관심을 둔다.[13]

2010년대 중반 이후 시에서 인간 존재를 고민하고, 비인간 대상과의 관계를 그려내는 방식에 주목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왔다. 먼저 김보경은 이소호, 황인찬, 유계영, 정다연, 송승언의 시에서 "기존의 자아나 인간 개념으로 환원되지 않는 '나'의 위치에서 권력의 지형도를 그려 보이거나 그것을 새로이 재구성"[14]하는 지점을 발견한다. 나아가 "단순히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상성과 규범성을 심문하며 새로운 존재론을 열어 보이는" 태도와 '인간이라는 사실과 불화하는 감각'이 최근 시의 징후임을 짚어낸다.[15]

인아영은 동물, 식물, 자연에 더해 사물이라는 비인간 물질에 내재한 생기와 에너지에 주목한 유계영, 정다연, 임승유, 나희덕의 시를 살핀다. 그에 따르면 2020년대 시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주체'가 아닌 '관계'를 최소한의 분석틀

11 임도한, 「생태문학론의 전개와 한국 현대 생태시」, 『한국시학연구』 제1호, 한국시학회, 1998, 297-298쪽.

12 홍문표, 「한국 생태시의 과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8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1, 233쪽.

13 이형권은 1990년대 이후 한국시에 대두된 두 흐름인 '생태주의'와 '탈식민주의'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는 연구에서 이 두 흐름이 공통적으로 "자연을 타자로 보는 시선에 대한 대항 담론"을 기반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의 상생"을 지향한다는 점을 짚어낸 바 있다. (이형권, 「한국 생태시의 탈식민주의 고찰—자연의 타자화, 탈인간화와 관련하여」, 『한국시학연구』 제40호, 한국시학회, 2014, 179-181쪽.)

14 김보경, 「인간의 가장자리로 걷기: 여성, 동물, 기계」, 『문학과사회』 제130호, 2020, 441쪽.

15 위의 글, 429쪽.

이자 비평적 입구로 삼는 방법론"이 요긴하다. 이때 "타자와의 화해 불가능성을 윤리의 결정적인 준거가 아닌 하나의 불가피한 조건으로 삼고," 비인간 물질이 지닌 생기와 에너지 그리고 권력에 열린 채 감응하는 양상을 적극적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다.[16]

한편 2000년대 이후 시가 탈인간화, 혼종화, 최소화하는 시적 주체를 획득하였다고 본 임지연의 경우 2020년대 시에 드러난 물질적 전회에 주목한다. 그는 김기택, 배수연, 김혜순의 시를 두고 2020년대 한국시가 신유물론적 자장 안에서 존재론적으로 평등한 사물과 관계 맺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 과정에서 사물과 인간이 연결되고 배치되며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방식을 논한다.[17]

앞선 논의를 종합해보면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시의 새로움 중 하나인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탐구하는 시도는 2020년대에 접어든 이후로도 유효하게 지속됨을 알 수 있다.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은 포스트 휴머니즘 및 신유물론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유의미하게 논의되어왔다.[18]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인간으로서 자기 존재를 반성하고, 비인간 타자와의 관계를 고민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한 편의 시에 담긴 의미를 독해하는 과정에서 시적 발화의 특이성에 주목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다. 시적 화자인 '나'가 시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에 주목할 때 시적 대상과

16 인아영, 「개와 나무와 양말과 시 2020년대 시에 나타난 '타자'와 비인간 물질의 정치생태학」, 『문학동네』 제110호, 2022, 109쪽.

17 임지연, 「시는 사물(물질)의 생동성을 어떻게 경험(기술)하는가?—2020년대 한국시와 신유물론」, 『(계간)시작』 제22권 1호, 천년의시작, 2023, 25-27쪽.

18 대표적으로는 고봉준, 「포스트휴먼 담론과 '인간-이후' 한국시의 한 가능성—김혜순의 『피어라 돼지』(2016)와 『날개 환상통』(2019)에 대한 포스트-휴먼적 읽기」, 『국어국문학』 제193호, 국어국문학회, 2020.; 김순아, 「현대시에 수용된 포스트휴먼기술 담론과 비주체의 윤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04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4.; 황선희, 「포스트휴먼 시대 비인간 담론으로 다시 읽는 여성시—김승희·김혜순·최승자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제77호, 한국시학회, 2024.; 김희진, 「김복희와 안태운 시의 동물 모티프 비교 연구」, 『문학과 환경』 제24권 2호, 문학과환경학회, 2025.; 이혜원, 「김혜순 시에 나타나는 횡단 신체성과 생동하는 물질의 감각—포스트휴먼 페미니즘으로 읽는 김혜순 시의 생태학적 의미」, 『문학과 환경』 제24권 3호, 문학과환경학회, 2025. 등이 있으며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관계 맺는 방식의 특이성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 크고 작게 드러나는 변화 또한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은 양경언과 소유정, 안지영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양경언의 경우 2010년대 시로부터 "자신에게 육박해오는 타자의 자취를 인정하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 "'나'와 '너'의 '대면'을 통해 잠재적인 대화 관계를 끈질기게 이어가는 방식"을 의미있게 읽어낸다.[19] 그에 따르면 2010년대 초반 시는 "가장 일상적인 말로, 혹은 시에서 가장 근원적이라 할 수 있는 '나'의 목소리/발화로 다른 관계의 형성을 요청/대화"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대화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발화하지 못하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며, '너'를 필요로 하는 움직임들이 "함께 살아가는 일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견을 가능케 한다.[20]

한편 소유정은 2010년대 시의 목소리가 1인칭으로 회귀하는 지점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2010년대 1인칭 화자의 목소리는 시인-화자의 내면을 토로하는, 자기 고백적인 목소리와는 확연히 변별되며 '나'로부터 시작되어 더 크고 단단한 '우리'라는 1인칭으로 확장되고 응집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때 '우리'라는 1인칭이 가능한 이유는 세월호 참사, 미투 운동과 문단 내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촉발된 페미니즘 리부트, 광장과 촛불 혁명을 겪으며 한 시대의 공통 감각으로서 슬픔과 분노의 감정이 타인과 공유되는 과정에서 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21] 이와 같은 소유정의 논의는 곧 '우리'라는 1인칭을 중심으로 2010년대 이후 시가 당대 현실 문제와 관계 맺는 방식의 특이성을 밝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0년대 시를 '포스트-미래파'로 명명함으로써 단정하는 비평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안지영은 2010년대 '수행적인 1인칭의 재등장'에 주목한다. 그에 의하면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발생한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신경

19 양경언, 「작은 것들의 정치성—2010년대 시가 '안녕'을 묻는 방식」, 『창작과비평』 제163호, 2014, 353쪽.

20 위의 글, 356-357쪽.

21 소유정, 「'나'에서 '우리'로 확장되는 주체—2010년대 시를 경유하며」, 『현대비평』 제12호, 2022, 한국문학평론가협회, 67-68쪽.

숙 표절 논란과 더불어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이어진 2016년 '문단 내 성폭력' 등의 사건들은 문학사적 차원에서 '재현의 윤리'를 묻게 하는 동시에 '재현의 한계'를 성찰하게 했다. 특히나 안지영은 '시와 정치' 논쟁을 촉발하였던 2009년 용산 참사를 함께 언급하며, 결국 이러한 사건들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문학의 자율성과 '나'-'우리' 이분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한국 문학장에서 본격적으로 출현했음을 날카롭게 짚어낸다.[22]

끝으로 다른 글에서 양경언은 2016년 이후 시에 나타난 '말하기' 양상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시적 실천 양상을 살핀 바 있다. 그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시적 언어가 정치성을 띤 방식으로 시적 양식을 변형시켜 나간다는 것"을 꼽고, '말하기'에 주목함으로써 '시가 발휘하는 정치적 역능'을 밝힌다.[23] 특히 그의 논의는 "실제 현실에 응전하는 문학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주목하였다는 점, "문학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문학성'이라는 개념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핌으로써[24] '시적 실천'[25]을 의미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

'나'의 목소리로 '다른 관계의 형성'을 요청하는 움직임, '우리'라는 1인칭의 출현, '수행적인 1인칭의 재등장'은 시적 화자의 변화 양상이 문학장 내외의 현실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비인간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 역시 같은 맥락 아래에서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논의의 흐름을 이어받아 이 글에서는 인간의 폭력성을 문제시하고 인간 존재를 반성하며 비인간 존재들과 '함께-세계 만들기'를 시도하는 시적 움직임이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하나의 '시적 실천'으로서 의미가 있음을 밝혀보고자

22 안지영, 「'포스트-'로 말해질 수 없는 것들—2010년대 시의 '정치성'에 대한 소고(小考)」, 『인문논총』 제59권,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70-71쪽.

23 양경언,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시적 실천들—2016년 이후 시에 나타난 '말하기' 양상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99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25, 288-289쪽.

24 위의 글, 295쪽.

25 양경언이 상정한 시적 실천은 "시가 창작 과정에서 현실과 응전하면서" 동원하는 '미학적 타율성'이 작동한다는 전제 아래 "작품과 현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서 행해지는 언어적 행동"을 뜻한다.(위의 글, 299쪽.)

한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문학장 및 문학작품의 변화를 유의미하게 논의한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26] 그러나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시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좀 더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성다영, 유계영, 한연희의 시는 공통적으로 현실의 폭력을 직시하고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반성한다. 구체적으로 이들 시의 시적 화자는 스스로가 비인간 존재들과 공생적으로 얽혀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함께-세계 만들기'를 시도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유의미하게 읽어낼 때,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시의 특징이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시의 흐름과 공명하는 지점을 밝혀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에 드러나는 '함께-세계 만들기'가 지닌 의미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3 인간 존재에 대한 반성과 '응답-능력' 기르기

오늘날 인류는 매일같이 크고 작은 폭력을 양산하고 목도하며 경험한다. 그와 동

26 김양선,「페미니즘 리부트와 '김지영'현상—조남주,『82년생 김지영』」,『여성문학연구』 제42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허윤,「광장의 페미니즘과 한국문학의 정치성」,『한국근대문학연구』 제19권 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8; 허윤,「'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의 여성 간 로맨스—비완.seri, 〈그녀의 심청〉(저스툰, 2017~2019)」,『대중서사연구』 제 26권 4호, 대중서사학회, 2020; 김요섭,「한국문학장의 뉴노멀과 독자 문제—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비평담론과 독자의 위상—」,『반교어문연구』 제58호, 반교어문학회, 2021; 김양선,「페미니즘 리부트 시대 여성문학의 계보 만들기: 한국여성문학사와 여성문학 앤솔로지의 필요성과 내용을 중심으로」,『여성문학연구』 제55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22; 윤혜정,「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가족소설에 나타난 균열의 양상과 의미—김혜진,『딸에 대하여』와 황정은,『연년세세』를 중심으로」,『여성문학연구』 제61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 신현민,「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 소설의 퀴어 시간성 연구—안담·천희란·전하영 소설을 중심으로—」,『이화어문논집』 제63권, 이화어문학회, 2024; 김효진,「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 서사와 여성 표상의 행방—백합.GL의 '당사자성'을 중심으로—」,『사이』 제39집,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5; 양경언,「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시적 실천들—2016년 이후 시에 나타난 '말하기' 양상을 중심으로—」,『현대문학이론연구』 제99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25 등이 있다.

시에 과학 기술의 발달은 가속화되고 있다. 지구 한 편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전쟁의 참상을 겪지만 다른 한 편에서 누군가는 첨단 기술의 수혜를 신속하게 누린다. 또한, 기후위기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지구의 남은 수명이 수치화될 정도이며 차별과 배제, 혐오 역시 점점 더 만연해지고 있다. 불가피한 절망과 불안 속에서 '지금은 대체 어떤 세계인가?'[27]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엄밀히 말해서 이처럼 다기한 문제들은 서로 무관하지 않다. 연속적이고 인과적이며 총체적인 문제들은 인간으로부터 비롯한다. 그 책임 역시 인간에게 있다.[28] 따라서 인류는 스스로 불러온 재앙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감히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지구 생명체들의 "더 나은 현재와 미래는 어느 특정한 크리터에 의한 것이 아니"며, 피모아 크툴루의 촉수가 뻗어 닿듯이 서로가 얽혀 "공동체의 과거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29] 이때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응답-능력(response-ability)"이다. '응답-능력'은 "대상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통윤리에서 말하는 논하는 타자의 고통에 대한 책임과는 구분되는 다종 간의 관계 맺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30] 해러웨이가 말하는 "윤리적 책임은 윤리적 명령에 따르는 의무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응답하기"에 있으며, '함께-되기'의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31] 그렇다면 세 시인의 시적 화자가 인간 존재를 반성하고 '응답-능력'을 기르는 방식은 어떠한가?

먼저 성다영의 시는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의 시집 『스킨

27 주디스 버틀러의 책 제목에서 빌려왔다.(주디스 버틀러, 김응산 역, 『지금은 대체 어떤 세계인가』, 창비, 2023.)

28 '망가진 지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과 그에 따른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인간의 행위성에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녀야할 반성적인 태도와 책임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29 권요안나·김용규, 「도나 해러웨이의 생태학적 사상—『트러블과 함께하기』를 중심으로」, 『영어권문화연구』 제17권 3호,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 2024, 19쪽.

30 현남숙, 「D. 해러웨이의 다종적 생태정치: '함께-되기'와 '응답-능력'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제35권, 한국여성철학회, 2021, 90쪽.

31 김애령, 「'다른 세계화'의 가능성—해러웨이의 「반려종 선언」 읽기」, 『코기토』 제92권,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0, 22쪽.

스카이』[32]에 등장하는 시적 화자는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는 동시에 세계의 균열점을 의문시한다. 성다영의 시에 "대립 구도로 이루어진 세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또 다른 분할선을 그음으로써" 대립구도를 흐트러뜨리며, "우리의 의식에 공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이분법적 구분을 의식"하게 한다[33]는 평가가 가능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구체적으로 성다영의 시에는 서로 다른 갈래의 질문들이 매듭처럼 엮여 있다. 이때 그의 질문법은 시적 정황들의 교차로 구성되며 아이러니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성다영 시의 화자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모순과 부조리를 발견하는 자가 된다. 여러 편에 걸쳐 화자는 동물을 잡아먹는 것의 문제와 강남역 살인사건, N번방 사건 등의 문제를 교차하며 인간이 지닌 폭력성을 문제시한다. 서로 다른 사건들을 교차·직조하며 인간이 복수종 타자에게 가하는 폭력과 또 다른 인간에게 가하는 폭력이 매듭처럼 엮여 있다는 사실을 사유하게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화자 스스로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현실의 폭력과 무관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그의 시에서 '나'는 정황들을 엮어내면서도 상황을 관망하거나 관조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고기를 좋아한다(…)나는 동물의 머리가 꽃잎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 적 있으면서도 외면했다 나는 지나치게 아무 생각이 없었다 지금도 그렇다 더 솔직히 말해보자 이 글을 쓰는 중간에 동물 시체를 먹었다//나의 사랑은 신성하다/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어"(「그는 알고 있다」中)와 같이 현실의 모순뿐만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나'가 지닌 모순 또한 고백한다.

> 횟집을 지나가는 사람이 말했다 정말 싱싱하다
> 그렇게 말하고 먹고 싶다는 욕구로 이어지는 것이 이상했다

32 성다영, 『스킨스카이』, 봄날의 책, 2022.(본문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제목 옆 괄호 안에 쪽수를 기입하는 것으로 각주 표기를 대신한다. 이후 유계영과 한연희의 시 인용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

33 송현지, 「수행하는 시인과 행위하는 시—성다영, 신이인, 조시현 시에 대한 첫 노트」, 『문학들』 제72호, 문학들, 2023, 27-29쪽.

대게는 먹이가 없으면 동족끼리 잡아먹는다
그것도 없으면 자기 다리를 잘라서 먹는다

모래도 진흙도 없는 수조에서
다리가 묶인 채 레고처럼 빈틈없이 쌓여 있는 큰 게야 누가 너의 이름을 대게로 지었니

삼 년 전 강남역에서 남자에게 살해당한 여자에게 한 남자가 말했다 다음 생엔 남자로 태어나길 그리고 그는 대게에게 말할 것이다 다음 생엔 인간으로 태어나렴

나는 바다에서 유영하는 게들을 상상한다
더 어둡고 더 깊은 바다
그리고 음식에 관하여 생각한다
어느 동물권 운동가의 인터뷰
엄마가 있거나 얼굴이 있는 것은 먹지 않아요
그러나 얼굴이라는 것은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닐까
나는 큰 게 해삼 버드나무 플라타너스 이름을 모르는 나무 우듬지의 아주 작은 벌레의 얼굴을 떠올린다

여기에 인사하는 나무 있잖아요
누군가 말했을 때
사람의 손 모양이 아니라 흔들리는 나뭇잎을 먼저 보는 것처럼

—「대게의 나라」(29-30) 전문

이 시는 화자의 의문에서 시작된다. 대게가 싱싱하다는 말이 그것을 먹고 싶은 욕구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화자는 이상함을 느낀다. 대게가 싱싱하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게”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았을

때 가능한 생각이다. 수조 안에 갇혀 “대게”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큰 게”는 요리의 재료일 뿐이며, 인간과 “대게”는 생물과 생물이 아닌 포식자와 피식자의 입장에 놓인다. 자연 상태의 대게는 먹을 것이 없으면 동족과 자기 다리까지 잘라서 먹는 생물이지만 “모래도 진흙도 없는 수조에서/다리가 묶인 채 레고처럼 빈틈없이 쌓여 있”음으로써 잡아 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대게를 바라보던 화자의 시선은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이동한다. ‘나’는 “삼년 전 강남역에서 남자에게 살해당한 여자에게”, “다음 생엔 남자로 태어나길” 바란다던 한 남자의 말을 언급하면서 그가 대게를 향해서는 “다음 생엔 인간으로” 태어나라고 말할 것이라 짐작한다. 살해당한 여자와 대게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선이 가득할 뿐인 남자의 말을 냉소하는 화자의 진술은 읽는 이로 하여금 다른 것을 보게 한다. 즉, 포식과 피식의 관계 그리고 가해와 피해의 관계가 설정되는 것, 그러한 구도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에는 무관심한 채 잡아 먹히거나 죽임당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를 화자는 문제적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화자의 시선은 다시 “더 어둡고 더 깊은”, “바다에서 유영하는 게들”로 이동하며 이 지점에서 ‘나’는 음식, 생물을 먹는 것에 대해 사유하기에 이른다. “엄마가 있거나 얼굴이 있는 것은 먹지 않”는다던 동물권 운동가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얼굴이라는 것은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닐까”하는 질문을 던진다. 이처럼 계속되는 화자의 의문은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화자는 사람이 지은 ‘대게’라는 이름 대신 “큰 게”와 “이름 모르는 나무”, 아주 작은 벌레의 얼굴까지를 떠올려 본다. 이후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품고 “인사하는 나무”가 있다는 누군가의 말에 “사람의 손 모양이 아니라 흔들리는 나뭇잎을 먼저 보는” 화자의 모습은 눈길을 끈다. 이처럼 성다영 시의 화자는 의문을 품고 질문하며 인간중심주의를 반성적으로 사유한다.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다른 존재와 관계 맺기를 시도함으로써 ‘응답-능력’ 기르기를 시도한다.

한편, 유계영 시의 화자는 당면한 현재를 정확하게 인식하려 함으로써 이후 자신의 태도를 설정하는 일에 주력한다. 그의 시집 『지금부터는 나의 입장』[34]에서 시적 화자는 ‘나’의 입장은 오직 ‘나’만이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 스

스로의 존재를 숙고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지만 이때 자신의 심연에 함몰되어 있거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문이 열리는 것을 기다렸다가/기회를 놓치지 않고 끼어"(「좋거나 싫은 것으로 가득한 생활」中)든다. 구체적으로 유계영 시의 화자는 열린 문 안으로 입장(入場)하여 인간이 아닌 다양한 모습으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 나간다.

유계영 시에서 두드러지는 '자아의 부재', '인간성의 부재'는 연대를 통한 윤리를 상상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35] 여기서 나아가 유계영 시의 화자는 인간 존재에 대한 반성과 '나'의 부재를 제시하는 동시에 '~고 싶다' 혹은 '~되고 싶다'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언술적 특징을 보인다. 그렇지만 비인간 존재가 되어보려는 시도가 매끄럽고 순탄하게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나'가 추구하는 것이 단순한 '되기'를 넘어 복수종 타자와의 '함께-되기'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해러웨이가 말하는 '함께-되기'의 실천은 곧 '응답-능력'과 연결되며 이는 "유사성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대칭적인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36] 유계영의 시는 모든 존재자들이 관계에 선행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얽힘의 존재들과 더불어 '안으로 말림'을 통해 복수종 타자들과 '함께-되기'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한다.[37]

나는 조금씩 부풀고 있어 울타리를 뛰어넘고 싶어
창문의 아집으로 오린 풍경을
알맞은 서랍에다 보관하는 일 관두고 싶어
사람의 손에 웬 따뜻한 피가 엉켜 있지?
나는 왜 온몸을 맡기고 있지? 발목을 깨무는 개들과 함께
피에 취해
피의 끈적함에 취해

34 유계영, 『지금부터는 나의 입장』, 아침달, 2021.
35 이재훈, 「연대의 파레시아—유계영, 『지금부터는 나의 입장』(아침달, 2021)」, 『청색종이』 제1호, 청색종이, 2021 참고.
36 김애령, 앞의 글, 23쪽.
37 도나 해러웨이, 황희선 옮김, 『해러웨이 선언문』, 책세상, 2019, 123쪽.

공중은 자신의 일터인 구름에 대해
제멋대로 유리를 갈아 끼우는 구름의 결벽에 대해
곤란을 겪고 있어 나의 뿔 조금씩 꺼지고 있어
덤불 속에 머리를 파묻고 양의 얼굴 서서히 마련되고 있어
다양한 모자가 필요해졌지
하나의 얼굴로 파다하겠지
—「양의 일기」(34) 전문

위의 시에서 화자는 "울타리" 안에서 그것을 뛰어넘고 싶은 욕망을 고백한다. 울타리뿐만 아니라 창문, 서랍 등 '나'와 풍경을 가두는 일종의 '틀'로부터 화자는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데, 이때 화자의 시선에는 "사람의 손에 웬 따뜻한 피가 엉켜 있"는 장면이 포착된다. "양의 일기"라는 시의 제목을 참고하였을 때, 이 시는 양의 입장에서 느끼는 부자유함, 취약함, 곤란함의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 고안된 울타리 안에서 양이 되어가는 화자의 감각은 복수종 타자의 자유를 박탈해온 인간중심주의적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입장이 되어 보는 것', 바로 이것이 유계영 시의 화자가 인간으로서 다른 종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복수종 타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화자는 안다. 중요한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수종 타자의 입장이 되어보고자 시도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태도는 일종의 '응답-능력' 기르기를 위한 노력으로써 의미가 있다. 복수종 타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상상적 경험은 '소중한 타자'와의 관계 맺기의 실천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복수종 타자와 '함께-세계 만들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것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고통에 응답할 때 비로소 가능"[38]해진다.

그렇다면 폭력적인 세계를 마주하며, 거듭되는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우리의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연희의 시는 "'아무나'의

38 사라 아메드, 시우 옮김, 『감정의 문화 정치』, 오월의 봄, 2023, 89쪽.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증언에 대한 기록이면서 동시에 목격자 진술"이며, "읽는 이를 '아무도'의 자리에서 '아무나'의 영역 안으로 단숨에 끌어들인다."[39] 이와 같이 『희귀종 눈물귀신버섯』[40]에서 한연희의 시적 화자는 촉수적 사유로 있을 법하지 않은 연결을 만들어내며, '친척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끝이 난 시점/거기엔/경계선이 있고/넘어서기에 딱 좋고//...//이 이야기가 부디 아무나 꽉 잡아주기를"(「손고사리의 손」中)바라는 태도로 시집 전반에 걸쳐 이야기를 이어간다. 해러웨이가 인류세라는 용어를 비판했던 이유 중 하나는 '게임오버, 너무 늦었다'는 식의 패배주의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세대 망가진 지구에 인간이 인간의 몫만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응답-능력'을 기르는 일을 외면할 수 없다.

한연희의 시적 화자는 좌절과 절망, 죄책감을 느끼며 부끄러워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러나 그것이 마냥 고통스럽게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끔찍한 역사에, 그리고 때로는 즐거운 역사에 직면하며 복수종의 번성을 위한 조건을 만들 책임"[41]을 지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한연희 시의 시적 화자가 인간중심주의를 반성하고, '응답-능력' 기르기를 시도하는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주꽃방망이나 도깨비바늘은 잘 모르는 한국 식물

그렇지만 어디에선가 피고 지고 열매를 남겨
하나의 군락을 만든다

뾰족하거나 둥글넓적하거나 방망이 같거나 티끝 같은 모양으로
무럭무럭 자라나 동물의 하루치 식량이 되거나

39 소유정, 「모든 '아무'의 이야기_한연희, 『희귀종 눈물귀신버섯』」, 『자음과모음』 제59호, 자음과모음, 2023, 412쪽.
40 한연희, 『희귀종 눈물귀신버섯』, 문학동네, 2023.
41 도나 해러웨이(2021), 앞의 책, 53쪽.

드넓은 땅을 그늘로 뒤덮어버릴 만큼의 위협을 가하면서

그러나 식물원 입구에 줄지어 선 관람객은 이것에 관심이 없다

씨앗 도서관에서 가끔 아이들이 씨앗을 대여하며
온갖 종류의 가능성에 대해 배우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임을 알아챈다

(…)

거꾸로 자라난 커다란 나무 앞에는
엽록소와 아드레날린과 짙은 여름의 냄새
야생의 경계선에 선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살기 위해 뻗어나가는 힘줄기
뿌리와 잎사귀가 다르지 않은 걸 본다

시끄러운 관람객 한 명이 통째로 이파리에 먹힌다

살기 위해 인간들이 맨땅에 머리를 박는다
관람 종료를 알리는 알림음에도 일어날 수가 없다

발아는 순식간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세포와 세포는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

어제의 잘못을 벗는다 그저께의 미움을 털어버린다 흙으로 되돌아가는 땀과 피의 성분 영양 듬뿍 머리카락이 뻗어나간다 죄는 죄를 구할 것

이고 용서는 용서를 구할 것이다 가능성이 구불구불 이어나가며 아이들
을 구할 것이다

야생의 밤은 아주 길고 영원해서
벌거벗은 몸이 되어가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
—「야생식물」(87-89) 부분

이 시에서 화자는 "어디에선가 피고 지고 열매를 남겨/하나의 군락"을 이루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자주꽃방망이나 도깨비바늘"을 소개한다. 그러나 "식물원 입구에 줄지어 선 관람객"들은 이 야생식물에 관심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을 문제적으로 바라보는 듯한 화자는 이후 "야생의 경계선"에서 "시끄러운 관람객 한 명이 통째로 이파리"에 잡아먹히는 장면, "살기 위해 인간들이 맨땅에 머리를 박는" 장면을 포착한다. 여기에는 보기 좋게 꾸며놓은 자연을 '관람'하는 것에 열을 올리는 인간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이 숨어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화자는 "어제의 잘못을 벗"고, "그저께의 미움을 털어"버리기를 감행한다. 이로부터 "흙으로 되돌아가는 땀과 피의 성분 영양 듬뿍 머리카락이 뻗어나"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한 편의 시에서 화자는 지구 생태계를 열심히 망치면서도 인간의 미적 기준에 따라 만든 인공 자연, 인공 야생을 '관람'하는 인간의 오만함과 위선을 비판하는 동시에 뉘우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가능성이 구불구불 이어나가며 아이들을 구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는 것을 화자는 알고 있다.

계속해서 화자는 이야기를 이어간다. "야생의 밤"에는 "벌거벗은 몸이 되어가도/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화자의 고백은 인간중심주의적인 사고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반성하고 야생 자연과의 '응답-능력' 기르기를 시도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는 퇴비로서 이미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과 촉수적으로 얽혀 있다. '공-산'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반성과 더불어 '함께-되기'를

시도함으로써 사유의 전회를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4 시적 대상과의 촉수적 뒤얽힘을 통한 '공-산'의 실천

트러블과 함께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상황을 잘 정리하기보다는 더욱 뒤섞어버리는 것, 무언가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트러블과 마주하면서 지금 당장 가능한 응답을 모색"'[42]하는 일은 필시 대상과의 뒤얽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함께-세계 만들기'를 구현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는 시적 대상과 뒤얽힘의 방식을 통해 드러난다.

해러웨이는 현생 인류가 처한 지질학적 세대를 쑬루세(Chthulucene)[43]로 명명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44] 그에 따르면 쑬루세에서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우리는 함께 살기와 함께 죽기를 실천할 수 있다. 쑬루세에 사는 인간은 "촉수의 뒤얽힘 속에서 잘 살고 잘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45] 그렇게 함으로써 지구상의 모든 크리터들은 '안으로 말림'을 경험하며 서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46] 뜨거운 퇴비 더미 속에서 우리는 지구 생명체들과 "함께-세계 만들기(world-ing-with)" 즉, "공-산(共-産)"[47]을 실천할 수 있다. 이는 곧 "지구 생명체들이 결

---

42 최유미, 앞의 책, 121쪽.

43 쑬루세의 조어 과정에서 해러웨이는 '피모아 크툴루'(Pimoa Cthulhu)라는 거미의 이름을 참고한 바 있다. 이때 미국의 호러 SF작가 러브크래프트(H.P.Lovecraft)가 고안한 크툴루 신화와 구분하기 위해 그는 메타플라즘(어형변이)을 활용하여 쑬루세(Chthulucene)라는 용어를 새롭게 만들었다.

44 해러웨이는 기본적으로 인류세에 깃든 인간중심주의적인 함의를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역사는 인간과 도구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즉, 종으로서의 역사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며 지구 이야기, 가이야 이야기, 땅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의 이야기에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현시대를 인류세로 명명할 경우 공-산, 공생, 공생발생, 발생, 그물망처럼 얽힌 상태, 미생물은 온전히 사고할 수 없게 된다. 인류세는 부유한 계층과 지식인들이 사용하기에 편한 용어일 뿐이다. (도나 해러웨이(2021), 앞의 책, 89-90쪽.)

45 도나 해러웨이(2019), 앞의 책, 366쪽.

46 도나 해러웨이(2021), 앞의 책, 109쪽.

47 공-산이라는 용어는 베스 뎀스터가 처음 제안한 용어이다. 공생은 자율생산에게 골칫거리이고, 공생발생은 자기 조직적인 개별 단위들에게 더 큰 말썽꾸러기이다. 살아 있는 생명

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48]

성다영 시의 화자는 인간이 지닌 폭력성을 교차하여 배치하는 동시에 고통스러워하는 복수종 타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그의 시적 화자는 복수종 타자가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직시하면서 응답하고자 한다. "공-산의 상대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응답-능력'을 기르는"[49] 차원에서 다종간의 얽힘을 감각하며 '함께-세계 만들기'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성다영 시의 화자가 어떠한 태도로 다종간의 얽힘을 감각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함께-세계 만들기'를 시도하는지 아래의 시를 통해 살펴보자.

오디의 이빨은 쌀알처럼 작고 쌀알처럼 강하다
단단하게 뭉쳐 있는 실공을 흐트러트린다
쉽게 부러지지 않는 나무토막도 씹어서 없앤다
이유 없이 사람을 물지 않는다
강아지라는 이유로 겁주는 사람은 물 것이다
그의 다리나 손가락을 세게

바람이 불지 않아도 가지가 움직인다
살아 있는 나무는 더 살아 있는 것 같고
더 살아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해도
몸을 기울인다
오디의 장난감에서 나온 실이 내 양말이나 가방에 붙어 있다
나는 몸에 붙은 실을 떼어내지 않는다
그것은 어디든지 간다
동네 카페와 제주도

체들의 역동적인 조직화 과정에서 공생발생이 더 많이 편재할수록 지구의 세계 만들기는 고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꼬이고 범위가 넓어지고 말려들고 공-산성을 띠게 된다.(위의 책, 111쪽.)

48 위의 책, 107쪽.

49 위의 책, 92쪽.

내 꿈에도
새가 날아와 내려앉거나 올라앉는다
그것을 지켜보는 동안 강아지가 새가 있는 곳으로 크게 뛴다

나는 줄을 놓친다
—「실공」(98-99) 전문

「실공」에서 “오디”는 “쌀알처럼” 작은 이빨을 가진 강아지로 “단단하게 뭉쳐 있는 실공을 흐트러트리”거나 “쉽게 부러지지 않는 나무토막”을 “씹어서 없앤다”. 오디의 이빨은 “쌀알처럼 강하”지만 “이유 없이 사람을 물지 않는다”. 다만 “오디”는 “강아지라는 이유로 겁주는 사람은 물 것”이다. 이처럼 ‘나’는 “오디”의 모습과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며 묘사한다. 이후 화자는 “오디”가 “쌀알처럼” 작은 이빨로 가지고 놀던 “장난감에서 나온 실”이 “내 양말이나 가방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나는 내 몸에 붙은 실을 떼어내지 않는” 선택을 한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가지를 움직이는 나무를 보고 “더 살아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고백하는 「실공」의 시적 화자는, “더 살아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해도” 일단 자신의 몸을 기울여봄으로써 살아있는 것의 의미를 재편하기 시작한다. “오디”의 이빨을 들여다보던 화자의 시선은 나무로 이동하고 양말과 가방, 나의 몸에서 동네 카페, 제주도, 꿈으로까지 이동한다.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들, “더 살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나’는 본다. ‘나’의 몸에 붙은 실은 ‘나’와 함께 “어디든지 간다”. 심지어 “내 꿈에도” 그리고 “내 꿈에도/새가 날아와 내려앉거나 올라앉는”것을 화자는 지켜본다.

시의 후반부에서 “강아지가 새가 있는 곳으로 크게” 뜀으로써 화자가 줄을 놓치게 되는 장면은 주목을 요한다. ‘나’가 목줄을 놓치는 순간 인간으로서 ‘나’와 ‘나’의 반려견 “오디”의 관계는 변모한다. 둘은 각각의 존재자로서, 지구상의 크리터로서 서로와 자신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해러웨이는 ‘공-산’을 실뜨기 게임에 비유하곤 한다. 실뜨기 게임에는 “특정한 종류의 성실”이 요구되는데, “결말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열려 있을지라도, 어떻게든 플레이를 이어나가는 성

실이고 상대가 내민 패턴에 기계적으로 응대하지 않을 성실”이다.[50] 이 시에서 ‘나’는 ‘오디’라는 존재에 성실하게 응답한다. 이와 같은 얽힘의 태도로부터 ‘망가진 지구’에서 비인간 존재와의 공생 가능성을 찾는 일을 통한 “공동의 살 만한 세계가 조금씩 구성”[51]되어간다.

1. **모자를 벗을 것.** 타인의 모자는 벗길 것. 서로 바꿔 쓸 것. 신사숙녀 모자라면 조속히 벗길 것. 어린이의 머리통에는 카우보이햇이 식자의 머리통에는 양동이가 급진주의자의 머리통에는 별말씀이 꼭 맞을 것. 눈사람의 방울모자는 절대로 손대지 않을 것.

2. **거기서 넘어질 것.** 울지도 웃지도 않을 것. 같은 자리에서 내일 다시 넘어질 것. 늘 넘어진 자리에서 내일모레 또 넘어질 것. 모르는 곳에서 일어설 것. 그때 울거나 웃을 것.

3. **회문回文일 것.** 입구와 출구를 만들지 않을 것. 동문서답일지라도 동분서주할 것. 어디든 길이므로 하염없이 걸을 수 있을 것. 어떻게 보아도 무늬이므로 하염없이 앉을 수 있을 것.

4. **동물 외 출입 금지.** 개 고양이 출입 가능. 돼지 소 양 말 염소 출입 가능. 비둘기 참새 닭 오리 출입 가능. 기린 하마 코끼리 사자 출입 가능. 인두겁 출입 금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

8. **독점하지 않을 것.** 고통과 외로움 속에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강물에 빠진 공을 바라보는 어린이 곁에 설 것. 나란히 걸을 것. 가란

50 최유미, 앞의 책, 70쪽.
51 도나 해러웨이(2021), 앞의 책, 75쪽.

히 가라앉을 것. 나의 고유함을 믿지 않을 것. 나누어줄 것. 흔해빠질 것. 그러나 흔해빠지는 것이 두려워 벌벌 떨 것.

(…)

10. 미래의 시가 마저 쓰게 할 것.

—「시」(104-105) 부분

이 시의 제목은 "시"다.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10개의 주문이 나열된다. 1. 모자를 벗을 것. 2. 거기서 넘어질 것. 3. 회문回文일 것. 4. 동물 외 출입 금지. 5. 아첨하지 않을 것. 6. 충격적인 백지일 것. 7. 실용적일 것. 8. 독점하지 않을 것. 9. 액자 보관하지 않을 것. 10. 미래의 시가 마저 쓰게 할 것. 이를 통해 유계영이 생각하는 '시'란 무엇인지, 그리고 '시'는 어떠해야 한다고 여기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유계영에게 있어서 시적 대상과의 촉수적 얽힘은 '나'의 모자를 벗고, "타인의 모자"도 벗기고 그것을 서로 바꾸어 써보는 시도로서 구체화 된다. 유계영의 시에서 시적 화자는 비인간 타자의 입장이 되어 보는 일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수행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늘 일정 부분 실패가 수반된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유계영 시의 화자가 계속해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실패하면서도 시도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데에 있다. 이것이 바로 유계영이 '공-산'을 실천하는 자세이다.

인간이 호모나 포스트휴먼, 예외적인 존재가 아닌 퇴비로서 지구 생명체들과 '공-산'을 실천할 때 촉수적 뒤얽힘을 감각하는 노력이 뒤따른다. 이때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는 일은 불가피하다. 이 시의 화자는 "울지도 웃지도 않"고, "같은 자리에서 내일", "늘 넘어진 자리에서 내일모레 또 넘어"짐으로써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입구와 출구를 만들지 않"고, "어디든 길이므로" 하염없이 걸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개와 고양이 돼지, 소, 양, 말, 염소, 비둘기, 참새, 닭, 오리, 기린 하마, 코끼리, 사자 등 다양한 동물은 출입할 수 있지만 "인두겁"은 금지된 이 세계에서 인간은 어떻게 망가진 지구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을까? 시인의 대답은 다음과 같

다. 우리는 “고통과 외로움 속에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강물에 빠진 공”을 건져주려 하기보다는 그 “공을 바라보는 어린이 곁에” 서는 것, 그리고 “나란히” 걷고, 가라앉는 것, 무엇보다 “나의 고유함을 믿지 않”는 자세, 나누어 주는 자세를 배움으로써 모든 절망과 희망을 “독점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요청된다. 유계영 시의 화자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 ‘매듭의 풀기와 엮기’를 반복하며 “미래의 시”가 마저 쓰일 것을 믿으며 지속한다.

밤마다 설치류가 오물거리는 일을 구경해
매일매일 챙겨 먹는 알약을 뱉으면서

구름버섯과 언니버섯 빨강버섯 귀신버섯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석이버섯 미치광이버섯
버섯은 셀 수 없이 이름이 많고 많으니
밤새도록 오물오물 혓바닥을 굴려보기

더는 여기서 성장을 멈추지 않을 거야

표고버섯이 자라지 않아도
여자애는 무럭무럭 어른이 되어가고

마음속에 균열을 일으킨다
다음을 위해 뿌리를 잘라낸다

버섯 스튜를 다 함께 먹은 날
시궁쥐한테서 빛나던 형광색 눈깔
짐승 가죽을 벗은 우리는

버섯을 따자 버섯이 되자 버섯을 먹자
언니들을 하나하나 세면서

자라지 않은 발을 볼 때마다 그 발을 짓이긴다

(…)

어제 딴 환각이 목구멍으로 내려간다
정말 끝내주게 환상적인 스튜를 찾아서
숲속으로 내달리면

내 뒤로
도깨비풀 같은 언니들이
폴폴폴 흩어지고
이름이 뭐였는지
얼굴이 어땠는지
상관없어
그렇게
한꺼번에 밀려와
비좁고 어두운 동굴을
막
빠져나온
그때

우리는 모두 나이 많은 여자였다
—「표고버섯 키트」(166-168) 부분

한연희 시집『희귀종 눈물귀신버섯』시인의 말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있다. “여자를 닮은 이름 모를 야생 버섯들은 홀로 나거나 무리지어난다. 대게 순하지만 독이 든 경우가 더 많다.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 해러웨이 역시 “폐허가 된 땅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보이는 생물”로 송이버섯을 소개한 바 있다. 그는 애나 칭의 말을 인용하면서 버섯의 생존 전략이 “약탈적 자본주의로 인해 황폐화된 이 땅

에서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는 인간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52]라고 이야기한다.

「표고버섯 키트」에서 화자는 "셀 수 없이 이름이 많고 많"은 버섯의 이름을 "밤새도록" 불러보면서 "더 이상 여기서 성장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선언한다. "버섯 스튜를 다 함께 먹은 날" '우리'는 "짐승 가죽을 벗"게 된다. 그리고는 "버섯을 따자 버섯이 되자 버섯을 먹자"고 다짐한다. 이때 버섯은 "언니들"의 존재와 동일시되며 '나'와 '언니들', '버섯'은 서로 얽힌 존재가 되어간다. 버섯을 세듯 "언니들을 하나하나 세면서", "내 뒤로/도깨비풀 같은 언니들이/폴폴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비좁고 어두운 동굴을" "빠져나온"다. 우리는 "어두운 동굴을" 나와서 "나이 많은 여자"가 될 때까지 "버섯 스튜를 다 함께 먹"고 '버섯을 따고 버섯이 되고 버섯을 먹으며'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들이 된다.

해러웨이는 벵시안 데스프레가 코드리 공원의 비둘기 집에 관하여 쓴 글에서 "기억하다"(remember)를 "다시-멤버가 되는 것"(re-member)으로, "기념하다(com-memorate)"를 "함께-기억하다"로 읽어낸다. 이는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상호 관계가 없었으면 사라졌을 무엇인가를 육체적인 현재 속으로 유인하고 연장"해서 다시 멤버가 되는 것이고, 오랜 협동의 기쁨과 놀이 그리고 그것의 폭력마저 함께 기억하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여는 것"[53] 을 의미한다. 한연희의 시적 화자는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어쩌면 이 모든 장면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하는 의문을 품다가도, "우리는 조금은 신이 나서 떠들어댄다"(「S이거나 F」中). 계속해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연결하는 한연희의 시적 화자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 태도를 보여준다.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복수종 타자들과 관계하며 촉수적으로 뒤얽힌 '우리'가 되어 두터운 현재를 만들어간다.

5 나가며

이 글에서는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시에 드러나는 '시적 실천'의 양상을 '함께-

52 위의 책, 69쪽.

53 최유미, 앞의 책, 138쪽.

세계 만들기'를 시도하는 시적 화자의 말하기 방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성다영의 경우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는 아이러니스트 화자가 등장하여 현실 세계와 인간의 폭력성을 들춰내는 동시에 '공-산'의 사유를 요청한다. 유계영의 경우에는 무언가 되고 싶다거나 무언가 하고 싶다는 언술을 반복함으로써 비인간 타자의 입장을 상상적으로 경험하고 '되기'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다. 끝으로 한연희의 시적 화자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감으로써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고, 흙에 얽힌 존재로서 '나'와 '우리'가 연결되는 감각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이 글에서 주목한 세 시인의 시에는 비인간 존재들과의 '응답-능력'을 기르고, '촉수적 얽힘'을 통한 '함께-세계 만들기'를 시도하는 '시적 실천'이 유의미하게 드러난다. 앞서 언급하였듯 세 시인의 시는 치밀하게 현실을 직면하고 철저하게 인간중심주의를 반성한다. 다시 말해, 의문을 던지거나, 다른 종 '되기'를 시도를 하거나,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복수종 타자와의 '함께-세계 만들기'를 시도한다. 이들 시가 지닌 힘은 매끄럽진 않더라도, 결국에 실패하고, 거듭 절망하더라도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성다영, 유계영, 한연희 시집 각각의 마지막 시의 마지막 구절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한 번도 보여준 적 없으니까/그래도 이렇게 말하지/사랑해"(성다영,「사랑의 에피파니」), "계속하세요,/귀가 멀어버린다 해도."(유계영,「링크」), "비좁고 어두운 동굴을/막/빠져나온/그때//우리 모두 나이 많은 여자였다"(한연희,「표고버섯 키트」).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귀가 멀어버릴지라도 '계속'하는 것, 나이 든 훗날의 지속될 '우리'를 상상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는 '함께-세계 만들기'를 향해 열려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비인간과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시의 역할과 윤리를 고민하는 시도들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시의 '함께-세계 만들기'라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이때, 폭력적인 세계 속에서 취약해진 몸과 마음으로 복수종 타자와 함께 사는 세계를 상상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는 종(種)과 성(性)에 따른 권력 구도, 지배/피지배의 구조 등을 문제시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하게 한다. 따라서 '함께-세계 만들기'를시도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는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문단_내_성폭력 말하기 운동, 미투 운동 등 한국 사회 및 한국

문단 내 발생한 여러 사건에 대한 하나의 '시적 실천'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성다영,『스킨스카이』, 봄날의 책, 2022.

유계영,『지금부터는 나의 입장』, 아침달, 2021.

한연희,『희귀종 눈물귀신버섯』, 문학동네, 2023.

단행본

연남경 외,『한국문학의 SF적 전회와 윤리적 사변들』, 역락, 2024, 173쪽.

최유미,『해러웨이, 공-산의 사유』, 도서출판b, 2020, 70쪽, 91-92쪽, 121쪽, 138-141쪽.

최진석,『사건의 시학』, 도서출판b, 2022, 233쪽.

도나 해러웨이, 최유미 옮김,『트러블과 함께하기』, 마농지, 2021, 26쪽, 53쪽, 58-59쪽, 69쪽, 75쪽, 103-111쪽, 122쪽.

_____, 황희선 옮김,『해러웨이 선언문』, 책세상, 2019, 123쪽, 366쪽.

사라 아메드, 시우 옮김,『감정의 문화 정치』, 오월의 봄, 2023, 89쪽.

논문 및 평론

권요안나·김용규,「도나 해러웨이의 생태학적 사상—『트러블과 함께하기』를 중심으로」,『영어권문화연구』 제17권 3호,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 2024, 5-32쪽.

김보경,「인간의 가장자리로 걷기: 여성, 동물, 기계」,『문학과사회』 제130호, 2020, 420-442쪽.

김애령,「'다른 세계화'의 가능성—해러웨이의「반려종 선언」읽기」,『코기토』 제92권,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0, 7-35쪽.

소유정,「'나'에서 '우리'로 확장되는 주체—2010년대 시를 경유하며」,『현대비평』 제12호, 2022, 65-78쪽.

_____, 「모든 '아무'의 이야기_한연희, 『희귀종 눈물귀신버섯』」, 『자음과모음』 제59호, 자음과모음, 2023, 409-412쪽.
송현지, 「수행하는 시인과 행위하는 시—성다영, 신이인, 조시현 시에 대한 첫 노트」, 『문학들』 제72호, 문학들, 2023, 24-41쪽.
안지영, 「'포스트-'로 말해질 수 없는 것들—2010년대 시의 '정치성'에 대한 소고(小考)」, 『인문논총』 제59권,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49-74쪽.
양경언, 「작은 것들의 정치성—2010년대 시가 '안녕'을 묻는 방식」, 『창작과비평』 제163호, 2014, 344-357쪽.
_____,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시적 실천들—2016년 이후 시에 나타난 '말하기' 양상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99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25, 287-325쪽.
이경수, 「포스트휴먼 시대 시 교육의 역할과 방향」, 『국어국문학』 제193호, 국어국문학회, 2020, 197-228쪽.
이재훈, 「연대의 파레시아—유계영, 『지금부터는 나의 입장』(아침달, 2021)」, 『청색종이』 제1호, 청색종이, 2021, 199-208쪽.
이형권, 「한국 생태시의 탈식민주의 고찰—자연의 타자화, 탈인간화와 관련하여」, 『한국시학연구』 제40호, 한국시학회, 177-200쪽.
인아영, 「개와 나무와 양말과 시 2020년대 시에 나타난 '타자'와 비인간 물질의 정치생태학」, 『문학동네』 제110호, 2022, 92-110쪽.
임도한, 「생태문학론의 전개와 한국 현대 생태시」, 『한국시학연구』 제1권, 한국시학회, 1998, 272-299쪽.
임지연, 「시는 사물(물질)의 생동성을 어떻게 경험(기술)하는가?—2020년대 한국시와 신유물론」, 『(계간)시작』 제22권 1호, 천년의시작, 2023, 18-44쪽.
현남숙, 「D. 해러웨이의 다종적 생태정치: '함께-되기'와 '응답-능력'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제35권, 한국여성철학회, 2021, 79-106쪽.
홍문표, 「한국 생태시의 과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8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1, 217-248쪽.
황선희, 「포스트휴먼 팬데믹 시대 시의 역할과 윤리-감정 교육과 치유의 가능

성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2권 2호, 한국근대문학회, 2021, 7-48쪽.

Abstract

‘Worlding-With’ in Poetry after the Feminism Reboot

Kim, Sun-bin(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trajectories of poetry after the feminism reboot by engaging Donna J. Haraway’s thought, with a focus on the modes and implications of “worlding-with” found in the poetry of Seong Da-young, Yu Gye-young, and Han Yeon-hee. In doing so, it explores how poetic engagements with non-human beings—one of the most salient developments in Korean poetry since the mid-to-late 2010s—have been meaningfully sustained and transformed. Across the works of these three poets, we encounter speakers who, grounded in a sense of guilt and critical reflection on a violent world, seek to build relationships with other beings and to practice worlding-with. In Haraway’s terms, worlding-with becomes possible through the cultivation of “response-ability” toward diverse critters on Earth, emerging from sympoietic entanglements. As the poetic speakers in the works of Seong Da-young, Yu Gye-young, and Han Yeon-hee attempt forms of becoming-with non-human others, they not only reflect critically on their own modes of existence but also enact ethical responsibility as a form of poetic practice. More specifically, Seong Da-young’s poetry foregrounds confessions and interrogations of anthropocentric violence; Yu Gye-young’s poetry portrays repeated, if often failed, attempts to become the other; and Han Yeon-hee’s poetry experiments with the possibility of commoning by sustaining the continuity of “our” stories. The practices of worlding-with non-human others articulated in these poems are significant as forms of poetic practice after the feminism reboot, and they represent a meaningful current in Korean poetry since the mid-to-late 2010s.

Key words: Feminism Reboot, Poetic Praxis, Symbiotic Entanglement, response-ability
Worlding-with Together—Seong Da-young, Yu Gye-young, Han Yeon-hee, Donna Haraway

논문제출 / 2025.11.15.
논문접수 / 2025.11.16.
게재확정 / 2025.12.11.